

청렴은 모든 선의 원천이자 덕의 근본



며칠 전 뉴스에 중국 전 공산당 하이난성 상무위원 장치(張琦·58)라는 고위관료가 부패 혐의로 조사받던 중 그의 비밀저택에서 13.5톤이 넘는 금괴 더미와 한화 45조 원에 달하는 현금과 다수의 호화주택 문서 등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언론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부패 규모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부패는 공동체를 갉아먹고 파괴시킨다.

조선 말기에도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했던 모

양이다. 다산 정약용은 국가가 터럭 하나도 썩지 않

는 곳이 없으니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

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매천 황현 또한 매천

야록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당대의 현실을 지

적하며 개탄한다.

다산 정약용은 다 썩어 문드러진 나라를 나라답

게 개혁하기 위해서 다산초당에서 목민심서를 저

술한다. 국가에 국가비전으로 무장한 개혁세력도

그 어떤 개혁의 주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

는 목민관만이라도 정신 차려 다스린다면 그래도

불쌍한 백성들이나마 구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이다.

다산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모았던 목민관들에게

는 특히 청렴을 강조한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인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

고 주장한다. 다산은 조선조에 청백리로 뽑힌 자가

통틀어 110명(전고대방典故大方에는 218명이 기

록되어 있다)인데 400여년 동안에 조정에서 벼슬

한 자가 거의 천 명이나 만 명인데 그중에서 청백리

로 뽑힌 자가 겨우 이 수에 그쳤으니 역시 사대부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하고 한탄한다.

목민심서는 중국 역사와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청백리로서 모범이 될 만한 수많은 인물들의 사례

를 소개하고 있다. 요즘처럼 인터넷 등 통신이 발달

하지도 않았던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료

를 수집해서 열거해 놓았는지 모를 정도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송나라 농부가 밭갈이를 하다가 옥을 주었는데

이 옥을 사성(司城: 춘추시대 송나라의 한 벼슬)인

자한(子罕)에게 바쳤으나 자한이 받지 않았다. 농부

가 청하기를 “이것은 농부들의 보배입니다. 바라옵

건데 상공께서는 받아주옵소서” 하였다. 자한이 말

하기를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으니 만일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그 대와 내가 모두 보배를 잃은 셈이네” 하였다.

공의휴(公儀休)가 춘추시대 노魯나라 목공穆公의 재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보내왔으나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재상께서는 물고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사온데 재상께 보내온 물고기를 어찌하여 받지 않으십니까?” 하니 공의휴가 “물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오.”

이제 재상이 되었으니 스스로 물고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소. 이제 물고기를 받아서 도리어 면직이 되면 다시 누가 나에게 물고기를 주겠소. 내가 그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오”라고 대답하였다.

관리가 한 도적을 심문하는데 네가 도적질하던

사이였다. 뒤에 황보가 어사가 되어 처주(處州: 중국의 주제이름)에 나갔을 때에 한 아전이 황보에게

뇌물을 쓰고자 손신을 통해서 바치려고 하니 손신

이 말하기를 “삼사 말하지 말라. 나로 하여금 듣게

하면 이것은 귀로 들어온 장물이다” 하였다.

다산은 말한다. “청렴이란 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사람이 청

렴하지 못한 것은 그자체가 짚기 때문이”라고.

편집국장 권행완



안동시의회 권광택 부의장 지방자치 의정 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권광택 부의장이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관한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권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관광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보육 등 지역현안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특히 안동시 디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지방의회 발전공로에 대

한 평가를 높이 인정받았다.

권 부의장은 3선 의원으로 제7대 전·후반기 총무위원장과 함께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의회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2018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연계 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나기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윤달(閏月)에 대하여

권오록(權五錄, 복야공파, 35세)

필자는 임진왜란 때 2등 선무공신宣武功臣인 권응수(權應鉉, 1546~1608) 장군의 12대손이다. 경주에서 출생하여 살다가 현재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 큰내는 영천 신령이다. 풍수지리학은 60대부터 시작하여 20여년 이상 계속 공부하고 있다.

경주 풍수지리학회 회장을 8년 동안 역임하였으며 지금도 묵자 현장답사 하며 공부하고 있다. 금년은 윤달이 음력 4월에 달아 모든 이들이 윤달의 인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족친들도 윤달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거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윤달의 의미를 몇 자 적는다.

음력의 달은 1년에 354일이고 양력의 달은 1년에 365일이다. 음력이 1년에 11일 부정하여 5년에 두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 금년 경자년에는 음력 4월에 달아는다. 음력과 양력을 함께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윤달의 비중은 크다. 조선시대 말기 순조 때 부사(府使) 흥석모(洪錫模)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라는 저술을 통해 윤달은 천지의 영적(靈的)인 기운도 인간사에 간접할 수 없다는 기간이라고 했다. 그 이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조상의 묘소를 이장하거나 수묘(修墓, 莘草), 비석(碑石), 상석(床石) 등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윤달이 오기를 몇 년 동안 오래 기다리지 말고 매년 한 번씩 오는 투수일(偷修日) 대한 후 10일, 입춘전 5일이 투수일이니 이날은 이 땅의 모든 흥신(凶神)이 상천(上天)하여 조화하는 날이며 세관교승일(歲官交承日)은 투수일에서 전 3일 후 3일 일주일간은 구년(舊年)의 흥신은 떠나고 신년의 관신(官神)은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 일년 중 공망일(空亡日)이므로 매사에 꺼리는 바가 없다고 했다. 위에서 말한대로 굳이 윤달을 고집하지 않고 천기대묘의 책을 참고하면 백사에 더욱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혹자는 아예 천기대묘를 무시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은 흥일이고 청명한 날은 길일이라는 사람도 있다.(비가 오면 일을 못하니까)

택일법은 천기대묘에 의한 것에서부터 독자적 비법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황도택일법이다.

달력이나 만세력에서 아래의 일진을 찾으면 그달의 황도일로 대길한 날이라서 조장, 이장, 사초, 비석, 상석, 수묘, 혼인, 이사 등 모두 사용해도 길하다고 되어 있다.

※월의 표시는 음력 기준이다.

1. 7월 자축진사미술子丑辰巳未戌의 일진일辰이 황도일黃道日

2. 8월 일묘오미유자寅卯午未酉子의 일진일辰이 황도일黃道日

3. 9월 진사신유해인辰巳申酉亥寅

4. 10월 오미술해축진午未戌亥丑辰

5. 11월 신유술해축진申酉亥戌辰

6. 12월 술해인묘사신戌亥寅巳申

※참고서적

신증 천기대묘大要, 대한역법연구소 역편譯編, p.175

위 기사를 읽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권오록(010-2471-8676)에게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회인

대표세무사: 권혁창(權赫昶)(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률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